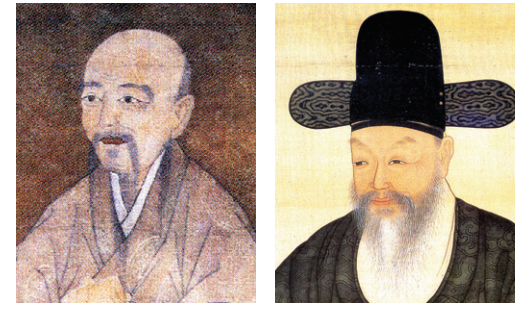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불교와 학문 소통한 아름다운 知音

연재를 시작하며

조선 후기 추사 김정희(敎史金正喜 1786~1856)와 초의선사(草衣禪師:1786-1860)의 만남은 유학자와 승려의 대표적 교류라는 점에서 호계산소(虎溪三笑)에 비견(比肩)될 만하다.



초의선사 추사 김정희

유학자와 승려의 대표적 교류 초의 스님 답신1점도 발견 안돼

특히 어떤 시대적 사안이나 한 사람의 생애를 직간접으로 조망할 수 있는 편지의 특성은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는데도 유익하다. 추사가 쓴 편지 중에 유독 초의에게 보낸 편지가 가장 많은 것은 역설적으로 추사와 초의가 느낀 공경감이 가장 크고 감동적이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 사유는 그의 편지에서 하나하나 드러날 것이다. 현재 초의에게 보낸 추사의 편지는 <완당선생전집>(여초의(與草衣))에 38통이 수록되었다. 개인 소장본 <주상운다(註相雲笈)>와 <백해담운(碧海染雲)>, 그리고 중앙박물관 소장본인 <나가막연(那伽墨緣)>, 아도레피서파박물관 소장본 <열해타운(羅海塗雲)>이 남아 있다. 이 외에도 몇 편의 개인 소장본 간찰이 전해진다. 현재 필자가 수집한 추사의 편지는 대략 65통 정도다. 추사의 편지에 대한 초의 스님의 답신은 현재까지 1점도 발견되지 않아 몹시 아쉽다.

추사의 편지에서 이들이 나누었던 배려와 인간애, 차를 통해 다졌던 지기(知己)들의 아름다운 우정을 되짚어 보려 한다. 지금 우리는 소통과 배려, 화합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소통의 토대는 두터운 신뢰와 배려가 있어야하고, 소통을 통한 화합은 진한 인간애와 서로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의지가 필요한 것은 아닐까. 바로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정다운 편지를 되새겨 보려는 연유가 여기에 있다.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들 속에는 그의 학문관이나 일상사와 아울러 불교관 및 초의와 나는 우정을 맺는 것들이 적혀 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들 속에는 그의 학문관이나 일상사와 아울러 불교관 및 초의와 나는 우정을 맺는 것들이 적혀 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들 속에는 그의 학문관이나 일상사와 아울러 불교관 및 초의와 나는 우정을 맺는 것들이 적혀 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들 속에는 그의 학문관이나 일상사와 아울러 불교관 및 초의와 나는 우정을 맺는 것들이 적혀 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들 속에는 그의 학문관이나 일상사와 아울러 불교관 및 초의와 나는 우정을 맺는 것들이 적혀 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들 속에는 그의 학문관이나 일상사와 아울러 불교관 및 초의와 나는 우정을 맺는 것들이 적혀 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들 속에는 그의 학문관이나 일상사와 아울러 불교관 및 초의와 나는 우정을 맺는 것들이 적혀 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들 속에는 그의 학문관이나 일상사와 아울러 불교관 및 초의와 나는 우정을 맺는 것들이 적혀 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들 속에는 그의 학문관이나 일상사와 아울러 불교관 및 초의와 나는 우정을 맺는 것들이 적혀 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들 속에는 그의 학문관이나 일상사와 아울러 불교관 및 초의와 나는 우정을 맺는 것들이 적혀 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들 속에는 그의 학문관이나 일상사와 아울러 불교관 및 초의와 나는 우정을 맺는 것들이 적혀 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들 속에는 그의 학문관이나 일상사와 아울러 불교관 및 초의와 나는 우정을 맺는 것들이 적혀 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들 속에는 그의 학문관이나 일상사와 아울러 불교관 및 초의와 나는 우정을 맺는 것들이 적혀 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들 속에는 그의 학문관이나 일상사와 아울러 불교관 및 초의와 나는 우정을 맺는 것들이 적혀 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들 속에는 그의 학문관이나 일상사와 아울러 불교관 및 초의와 나는 우정을 맺는 것들이 적혀 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들 속에는 그의 학문관이나 일상사와 아울러 불교관 및 초의와 나는 우정을 맺는 것들이 적혀 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들 속에는 그의 학문관이나 일상사와 아울러 불교관 및 초의와 나는 우정을 맺는 것들이 적혀 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들 속에는 그의 학문관이나 일상사와 아울러 불교관 및 초의와 나는 우정을 맺는 것들이 적혀 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들 속에는 그의 학문관이나 일상사와 아울러 불교관 및 초의와 나는 우정을 맺는 것들이 적혀 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들 속에는 그의 학문관이나 일상사와 아울러 불교관 및 초의와 나는 우정을 맺는 것들이 적혀 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들 속에는 그의 학문관이나 일상사와 아울러 불교관 및 초의와 나는 우정을 맺는 것들이 적혀 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들 속에는 그의 학문관이나 일상사와 아울러 불교관 및 초의와 나는 우정을 맺는 것들이 적혀 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들 속에는 그의 학문관이나 일상사와 아울러 불교관 및 초의와 나는 우정을 맺는 것들이 적혀 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들 속에는 그의 학문관이나 일상사와 아울러 불교관 및 초의와 나는 우정을 맺는 것들이 적혀 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들 속에는 그의 학문관이나 일상사와 아울러 불교관 및 초의와 나는 우정을 맺는 것들이 적혀 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들 속에는 그의 학문관이나 일상사와 아울러 불교관 및 초의와 나는 우정을 맺는 것들이 적혀 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들 속에는 그의 학문관이나 일상사와 아울러 불교관 및 초의와 나는 우정을 맺는 것들이 적혀 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들 속에는 그의 학문관이나 일상사와 아울러 불교관 및 초의와 나는 우정을 맺는 것들이 적혀 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들 속에는 그의 학문관이나 일상사와 아울러 불교관 및 초의와 나는 우정을 맺는 것들이 적혀 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들 속에는 그의 학문관이나 일상사와 아울러 불교관 및 초의와 나는 우정을 맺는 것들이 적혀 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들 속에는 그의 학문관이나 일상사와 아울러 불교관 및 초의와 나는 우정을 맺는 것들이 적혀 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들 속에는 그의 학문관이나 일상사와 아울러 불교관 및 초의와 나는 우정을 맺는 것들이 적혀 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들 속에는 그의 학문관이나 일상사와 아울러 불교관 및 초의와 나는 우정을 맺는 것들이 적혀 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들 속에는 그의 학문관이나 일상사와 아울러 불교관 및 초의와 나는 우정을 맺는 것들이 적혀 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들 속에는 그의 학문관이나 일상사와 아울러 불교관 및 초의와 나는 우정을 맺는 것들이 적혀 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들 속에는 그의 학문관이나 일상사와 아울러 불교관 및 초의와 나는 우정을 맺는 것들이 적혀 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들 속에는 그의 학문관이나 일상사와 아울러 불교관 및 초의와 나는 우정을 맺는 것들이 적혀 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들 속에는 그의 학문관이나 일상사와 아울러 불교관 및 초의와 나는 우정을 맺는 것들이 적혀 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들 속에는 그의 학문관이나 일상사와 아울러 불교관 및 초의와 나는 우정을 맺는 것들이 적혀 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들 속에는 그의 학문관이나 일상사와 아울러 불교관 및 초의와 나는 우정을 맺는 것들이 적혀 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들 속에는 그의 학문관이나 일상사와 아울러 불교관 및 초의와 나는 우정을 맺는 것들이 적혀 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들 속에는 그의 학문관이나 일상사와 아울러 불교관 및 초의와 나는 우정을 맺는 것들이 적혀 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들 속에는 그의 학문관이나 일상사와 아울러 불교관 및 초의와 나는 우정을 맺는 것들이 적혀 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들 속에는 그의 학문관이나 일상사와 아울러 불교관 및 초의와 나는 우정을 맺는 것들이 적혀 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들 속에는 그의 학문관이나 일상사와 아울러 불교관 및 초의와 나는 우정을 맺는 것들이 적혀 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들 속에는 그의 학문관이나 일상사와 아울러 불교관 및 초의와 나는 우정을 맺는 것들이 적혀 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들 속에는 그의 학문관이나 일상사와 아울러 불교관 및 초의와 나는 우정을 맺는 것들이 적혀 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들 속에는 그의 학문관이나 일상사와 아울러 불교관 및 초의와 나는 우정을 맺는 것들이 적혀 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들 속에는 그의 학문관이나 일상사와 아울러 불교관 및 초의와 나는 우정을 맺는 것들이 적혀 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들 속에는 그의 학문관이나 일상사와 아울러 불교관 및 초의와 나는 우정을 맺는 것들이 적혀 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들 속에는 그의 학문관이나 일상사와 아울러 불교관 및 초의와 나는 우정을 맺는 것들이 적혀 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들 속에는 그의 학문관이나 일상사와 아울러 불교관 및 초의와 나는 우정을 맺는 것들이 적혀 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들 속에는 그의 학문관이나 일상사와 아울러 불교관 및 초의와 나는 우정을 맺는 것들이 적혀 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들 속에는 그의 학문관이나 일상사와 아울러 불교관 및 초의와 나는 우정을 맺는 것들이 적혀 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들 속에는 그의 학문관이나 일상사와 아울러 불교관 및 초의와 나는 우정을 맺는 것들이 적혀 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들 속에는 그의 학문관이나 일상사와 아울러 불교관 및 초의와 나는 우정을 맺는 것들이 적혀 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들 속에는 그의 학문관이나 일상사와 아울러 불교관 및 초의와 나는 우정을 맺는 것들이 적혀 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들 속에는 그의 학문관이나 일상사와 아울러 불교관 및 초의와 나는 우정을 맺는 것들이 적혀 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들 속에는 그의 학문관이나 일상사와 아울러 불교관 및 초의와 나는 우정을 맺는 것들이 적혀 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들 속에는 그의 학문관이나 일상사와 아울러 불교관 및 초의와 나는 우정을 맺는 것들이 적혀 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들 속에는 그의 학문관이나 일상사와 아울러 불교관 및 초의와 나는 우정을 맺는 것들이 적혀 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들 속에는 그의 학문관이나 일상사와 아울러 불교관 및 초의와 나는 우정을 맺는 것들이 적혀 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들 속에는 그의 학문관이나 일상사와 아울러 불교관 및 초의와 나는 우정을 맺는 것들이 적혀 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들 속에는 그의 학문관이나 일상사와 아울러 불교관 및 초의와 나는 우정을 맺는 것들이 적혀 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부처님 가피가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일이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 통합선교종 입종안내

◆ 입 종 안 내 ◆

귀의상보호하고,

저희 사단법인 대한불교 통합선교종은 초대 세계법왕 일봉 서경보 존자님의 유훈을 계승하여 세계평화와 불교중흥의 큰 발원으로 일봉존자의 수법제자이시며 재)일봉선교종 초대 총무원장을 역임하신 법담 경각 대종사님을 초대종정으로 모시고 지난 7월 24일 『창종선포대법회』를 가졌습니다. 먼저 지면을 빌어 본 종의 창종에 축하와 성원을 보내주시 원근각지의 청정승가와 불자여러분들께 감사인사 올립니다.

『열린종단·교육·수행종단·개혁과 혁신의 종단』을 표방하는 본 종단에서는 “일봉”의 큰 그늘아래 하나 되고자 하는 일봉문도와 일봉존자와 소중히 인연된 청정승가, 법사, 재가불자님들께 언제나 입종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사오니 함께하실 사부대중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불기2556년 8월 좋은 날

- ※ 입종 구비서류(공통) ※
 - 입종신청서(소정양식)1부
 - 주민등록증 사본1부, 증명사진 3매
 - 재적종단 수계증 사본 또는 승적확인서
 - 전납교구원장: 지현(약천사)
 - 입종비(총무원 문의 바람.)
 - 사찰등록 회향時 -
 - 사찰 정기부등본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1부
 - 사찰전경사진(내, 외부, 간판 등) 3매
 - ※ 입종관련 문의는 총무원 또는 가까운 전국교구 총무원에 하시면 됩니다.
- ※ 전국교구 총무원 ※
 - 경기남부교구원장: 일성(미륵사) ☎ 011-350-5855
 - 경기북부교구원장: 지산(통일안국사) ☎ 031-876-2235
 - 경북교구원장: 해동(지장사) ☎ 054-672-6564
 - 전남교구원장: 지현(약천사) ☎ 062-266-7462
 - 전북교구원장: 성각(백룡사) ☎ 010-9516-9600
 - 충청교구원장: 성원(해천사) ☎ 044-863-5582
 - 제주교구원장: 대성(일봉총법원) ☎ 064-702-2328
 - 대전교구원장: 정원(삼성암) ☎ 042-583-1009
 - 부산교구원장: 정일(자평사) ☎ 055-342-3551
 - 울산교구원장: 지운(운지암) ☎ 052-260-4897
 - 대구교구원장: 보적(지장사) ☎ 054-482-1071

(사) 대한불교 통합선교종 총무원장 화엄

총정원 _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1동 323~194 미룡사. 051)404~4300
총무원 _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세종로 4928번지 (2층)
전 화 _ 041)566-2277, 566-2278 전송 041)566-6141

“보시로 금생 회향...육신은 한벌의 옷”

이웃나라 돕는 일서 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인연과 인기로 이어진 시방세계에는 장엄한 광경을 연출하는 한쪽의 화엄만다라 같은 인연이 많다. 여기서 화엄(華嚴)이란, 이름 없는 꽃을 포함한 수많은 종류의 꽃으로 법계를 아름답게 장식한다는 뜻이다. 우리 불교계에도 이렇듯 승속의 경계를 넘어 아름다운 화엄의 꽃을 피우며 이 사회를 밝고 건강하게 가꾸어 나가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들이 걸어온 행보는 한가다 씨줄과 날줄도 튼실하게 엮어져 화엄만다라 인드라망의 세계를 구현하고 있다. 차별과 경계에 걸림 없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화엄만다라의 세계는 보시처럼 깊지다. 그 세계를 펼쳐미 사는 이들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전해준다. 격주 그들을 찾아간다. <편집자주>

첫 번째 주인공은 대한불교조계종 원로의원 원서 스님이다. 9월 12일 스님이 계신 서울 정릉 봉곡사를 찾았다.

팔순을 앞둔 세수가 도처히 먼지가 없을 정도로 여전히 기력이 넘쳤다. 지난 2월 7일 캄보디아 승왕 템불 스님 초청으로 프놈펜 승왕정을 방문해 캄보디아 빈국지 학교 교사로 지원 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지원금을 전달한 내용부터 여쭙었다.

“인생을 회향할 나이인데 마지막에 좋은일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연한 기회에 캄보디아의 열악한 교육 실정을 알게 됐어요. 지난해 8월 캄보디아 승왕청와 무 담담 스님이 캄보디아 어린이 교육을 위해 교사로 지원을 요청해와 성사됐습니다. 1997년 일본 도쿄에서 ‘세계평화기원 법회’와 2003년 캄보디아 승왕청서 템불 스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다시 좋은일로 친연하니 기쁩니다.”

원서 스님은 캄보디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 사업이라고 생각했다. 원서 스님은 사업 취지부터 말씀을 열었다. “‘십년수목백년수인(十年樹木百年樹人)’이란 말이 있습니다. (편지(편지))에서 유래된 말인데 ‘10년을 내다보며 나무를 심고, 100년을 내다보며 사람을 심는다’라는 뜻으로,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비유하는 고사 성어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권수(權修))편에 보면 1년 계획으로는 곡식 심는 것만한게 없고, 10년 계획으로는 나무 심는 일만한 게 없으며, 일평생 계획으로는 사람 키우는 일만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一年之計, 莫如樹穀, 十年之計, 莫如樹人, 終身之計, 莫如樹人, 一樹一獲者穀也, 一樹十獲者木也, 一樹百獲者人也)”라고 설명했다.

스님은 또한 “인재 양성은 국가의 미래가 걸린 것이니 만큼 100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잘 세워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말도 이르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캄보디아의 장래는 바로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 교육에 있다는 생각에서 이 사업을 앞으로 죽을때까지 꾸준히 해나갈 것입니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불행하게도 캄보디아에는 사회를 짊어지고 나갈 40-50대 남자들이 거의 없어 국가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게 원서 스님의 설명이다. 캄보디아 크메르 루머 정권 때, 크메르루에 의해 수백만 명이 학살됐기 때문이다.

1975년 4월 미군이 베트남에서 철수함에 따라 약화된 캄보디아 친미 톤농정권을 몰아낸 크메르 루즈의 지도자 폴포트가 ‘농민전국’을 건설한다. 1979년 1월 캄보디아군이 프놈펜을 함락할 때까지 4년간 자국민을 대상으로 대량학살을 자행했다. 이 시기로 캄보디아는 인구의 40%가 14세 미만의 아이들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이다. 현재 캄보디아 정부와 승왕



천호회망재단 이사장 원서 스님(사진 왼쪽)이 올 2월 캄보디아 벽옥지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교과서와 학용품들을 나누주고 있다.



정 승왕 템불 스님도 이를 절감하지만, 재정부족으로 연두를 못내고 있다. 원서 스님은 “오늘날 베트남이 동남아시아에서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데는 당시 월맹 수장인 호치민의 교육 정책이 주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치열한 전쟁 속에서도 베트남 발전을 위해, 27명의 인재들을 선발해 비밀리에 러시아 유학을 시켰지요. 그 인재들이 통일 베트남을 발전시키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 만큼 교육은 한 나라 발전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캄보디아 대도시를 제외한 벽옥지 학교들은 재정 부족으로 교과서가 없거나 부족한 상태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심지어는 선생님을담만 교과서로 가르치고 학생들은 책 없이 논과 귀로만 배운다. 승왕 템불 스님은 캄보디아에서 제정인 열악한 북서부 국경지역 브레아비히에 주와 오토르만베에 주 학교들에 교과서 지원을 원서스님 측에 요청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원서 스님은 지난해 자신의 초인 ‘천호회’를 만든 ‘천호회망재단’을 설립, 인생의 마지막을 동남아시아 벽옥지 교육 지원 사업에 전념하기로 결심했다.

원서 스님은 템불 스님에게 캄보디아 벽옥지 마을 학교에 체계적인 교과서지원을 매년 하기로 약속했다. 2개 주의 학교 1-2개 학교를 선정해, 학생 수 대비 50%-100%의 교과서를 지원하고, 제작되는 교과서는 결점지에 후원자를 명시할 계획이다. 특히 내달인 10월에 원서 스님은 다시 캄보디아를 방문해 교과서 후원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천호회망재단’ 설립, 동남아 교육지원 벽옥지 학교에 교과서 1만부 보시 네랄·라오스 등도 후원할 계획

스승 금오 스님 “수행자 냉철해야 한다” 북·동포·외국인 노동자 돕기 서예전 탐진적 삼독심 줄이면 성공한 인생

“현재까지 세 번 정도에 걸쳐 교과서 1만부 정도를 후원했지요. 앞으로 3만부 정도 더 후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캄보디아 뿐만 아니라 네랄과 라오스 등에도 교육 발사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원서 스님이 수행자로서 올곧게 보시행을 펼치며 살 수 있었던 데에는 스승 금오(金烏·1896~1968)스님의 역할이 컸다. 1956년 환갑의 나이로 구태학사(구태)라는 말도 이르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캄보디아의 장래는 바로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 교육에 있다는 생각에서 이 사업을 앞으로 죽을때까지 꾸준히 해나갈 것입니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수행자는 냉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을 망치게 되지요. 은사 스님이 참선을 강조한 것도 바로 수행이 바탕이 돼야 공부도 할할 수 있다는 것임을 뒤늦게 알았지요. 금오 스님이 없었으면 오늘의 원서도 없었을 겁니다.”

제자에 대한 엄격한, 그것은 ‘언어의 길이 끊어진 자리를 가리키는 은사 스님의 방편’ 일서 스님도 은사 스님에 대한 신뢰가 단단해지면서 원서 스님은 금오 스님이 1854년부터 말기인을 받아 추진 중인 불교경회 운동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저는 참 행복한 수행자입니다. 효보 스님과 동산 스님, 서암 스님 등 근현대 가리랑 같은 선지사들을 배워

중국 동산선사가 ‘부처가 무엇이나’는 물음을 받고 ‘내 삼베옷 무개가 세 근’이라고 답한 데서 유래한 화두다. 이는 누구에게나 주는 ‘흔한’ 것이어서 순간 원서 스님은 섭섭했다. 하지만, 그 너머로 깨우침이 있다는 것을 그로 으켜서 알았다. 화두 참구 자체가 바로 정진점심의 길임을 안 것이다.

조계종 최고 품계인 대종사에 까지 오른 원서 스님은 요즘 서울 성북구 정릉2동 봉곡사 영화사에서 지내신다. ‘도심속 산사’인 봉곡사는 700년 고찰로 유서 깊은 곳이다. 원서 스님은 불교사 주지, 총무원 총무부장, 재무부장, 호계원장, 중앙총회회장 등 반세기 동안 집어졌던 종단의 중책을 모두 밟아보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



전법일기

삭발·승복 입은 모습보니 고마웠다

무척 친숙한 느낌을 주는 짧은 스님 한 명이 무척 반가운 얼굴로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 왔다. 함께 마주 인사를 하자 해맑은 웃음을 띤 얼굴로 자신을 알아보셨나고 묻는다. 표정이나 태도도 보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가까운 사이 일 것 같았다. 그래서 잠시 생각을 더듬어 보았지만 뚜렷하게 기억이 떠오르지 않았다.

조금 난감한 기색을 보이자 자신의 이름을 밝힌다. 그제야 무릎을 치며 탄성을 내었다. 탁석 손을 잡고 반가운 인사를 새로 나누었다. 1989년 은사 스님을 모시고 대전의 포교당에서 포교의 인연을 지을 때, 학생법회에서 다녔던 불자였던 것이다. 그렇게 삭발을 하고 승복을 입은 모습을 보니 고맙고 소통하기가 바랄 바 없었다.

80년대 중반 출가하고 오래 지나지 않아 국립묘지 내에 있는 화장사를 찾았다. 고교시절 학생회 법회를 다닐 때 같이 존경하고 마음에 품었던 법사 스님께서 그곳에 머물고 계셨기 때문이었다. 내가 출가하게 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을 꼽으라면 학생회 법사였던 도운 스님을 첫 손가락에 꼽아야 할 것이다.

그때도 지금도